

전북도, 내수면 양식산업 선두로 '우뚛'

전국 최초 토하 양식기술 특허 3건 동시 출원... 기존 양식 품종보다 산업적 가치 높아 새로운 소득원 창출 기대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토하 양식기술 특허 3건 동시 출원하고 토하를 대국민 기호도와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으로 탈바꿈시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한다.

도 수산기술연구소는 2019~2021년 까지 3년에 걸쳐 자체 시험연구 과제인 토하(새뱅이) 양식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완전 양식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 3건에 대하여 도 자체 심의를 거쳐 지난 19일에 특허 출원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출원한 특허 기술 3건은 새뱅이 교육 습성을 활용한 선택적 선택 번식장치와 선택 기술, 대량생산을 위한 성숙 및 포란유도 기술, 노동력 절감을 위한 맞춤형 대량출하 포획 기술 등으로 모두 민간 현장을 반영한

실증시험 연구를 통해 정립된 기술이며, 전국적으로 양식기술 연구사태가 전문 토하를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시험연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도출했다.

토하류는 국내 토종 갑각류 중 민물새우류를 총칭하는 표현으로 지역별로 4~7종이 존재한다. 특유의 향과 부산물(잔배, 내장)이 많은 민물고기 대비 거부감이 적고 국내 수요가 높은 품종이지만 대부분을 어획에 의존하고 있으며 어획량 또한 소량으로 전국적으로 소매 유통되는 실정으로 산업적 가치가 높은 토하류를 면밀히 분석 및 조사한 결과, 대량생산이 가능한 새뱅이(*Cardina denticulata denticulata* De Haan)를 단일 품종으로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시험연구를 추

진해 왔다.

또한 새뱅이는 일반적인 어류나 갑각류와는 습성이 달라 타 품종에서 이미 확립된 어미 육성관리 및 사육수 수질관리 등의 기술을 응용하기가 어려워 독립적인 시험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뱅이의 여러 특징을 규명하게 되었으며 특히 동종을 포식하는 공식 현상이 적어 고밀도 사육이 가능하며, 부화 후 별도의 먹이생물이 필요 없고 동물성 단백질 요구량 또한 적어 배합사료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어 현재 양식산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력 위주 경영과 고비용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내수면 어류가 활어 및 냉동 선어를 활용한 탕·찜 등의 레시피에

국한되었으나, 새뱅이는 각종 레시피에 첨가 가능한 주·부재료로서 다양한 가공 기술의 접목 가능하여 시장 유통 및 6차 산업과의 연계가 유리한 품종으로 전국 내수면 양식 면적 1위(268/832ha, 32.3%), 전체 생산량 2위(735t, 20%)의 전북도는 지역적 유리함을 활용하여 대형 산업화 가능성이 크게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어업기술센터)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해양수산부 '연구·교습·장 사업'에 선정되어 기존 정립된 양식 기술을 다양한 모델로 현장감 있는 매뉴얼 확립을 통해 실제 어업인에게 현장 적용 가능한 기술을 보급하고자 연구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농수산식품 동남아 수출시장 개척

도, 태국 방콕서 방콕식품박람회 전북 홍보관 운영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그간 코로나 확산으로 주춤했던 해외 식품전시회 참가를 24일~2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방콕식품박람회(THAIFEX-ANUGA ASIA) 전북홍보관 운영을 시작으로 3년 만에 현지 해외시장개척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정식으로 열리게 되는 태국 방콕식품박람회는 태국 정부와 독일의 쾰른 박람회(ANUGA) 주최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계 3대 식품전시회 중 하나로 아세안 최대 B2B 식품박람회이다.

태국 방콕식품박람회 전북홍보관에는 복분자, 과채주스, 조미김, 김치류 등 제품을 생산하는 전북도 내 4개 업체가 참가하여 태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개척을 위한 전시·상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는 전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의 25%(약 1억1000만불) 지난해 기준을 점유하는 주요 시장으로 높은 경제성장률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세에 있으며, 특히 태국(약 5500만불, 지난해 기준)은 우리도 농식품 수출 12%를 점유하며 수출 3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북도의 동남아 주요 수출 품목은 마른김, 면류, 비스킷, 사료, 닭고기, 배 등으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수출 품목을 확대하고 신규품목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박람회 종료 후에도 마케팅 및 바이어 초청 상담 등 사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도,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종료

상반기 총 39건 산불 발생... 대형 산불·인명·가족 등 재산 피해 없이 종료

전북도는 지난 1월 29일부터 운영해 온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도·시군·읍·면·동 258개소)가 5월 15일로 종료했지만, 건조한 날씨에 일부 임차철기 및 산불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산불 발생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년만에 최악의 기상조건 하에 도 내에서는 올 상반기 봄철 산불방지 비상근무 기간 중 총 3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40.56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산불발생 원인분석에 따르면 입산자 실화 23건(59%),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10건(26%), 기타 성묘

객 실화 등 6건(15%)이다.

시기별로는 1월에 3건(8%), 2월에 7건(18%), 3월에 7건(18%), 4월에 17건(43%), 5월에 5건(13%)이 발생하여 상반기 건조한 봄날씨가 짙어지면서 산불발생이 지속되었고, 특히 4월에 산불이 집중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서는 산불방지대책기간 동안 대형산불 방지 등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2,809개 마을)을 비롯해 주요 등산로 일원에서 산불조심 캠페인 전개 및 라디오, 신문 등을 이용한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

으로 추진했다.

또, 입산자에 의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760명을 전진 배치, 폐쇄 등산로 82개 노선 441km, 입산 통제구역 327개소 90천ha 등 산불 취약지역의 입산자 출입을 차단했다.

감시 사각지대에 설치한 80대의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를 전진 가동하여 사전예방 및 초동진화체계와 산불진화용 임차철기 3대를 도내 3개 권역에 분산 배치하는 등 신속한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이외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58명으로 산불 인화물질 제거반을 구성해 산림연접 경작지의 영농부산물

파쇄와 영농쓰레기 수거 등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해 산불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도 하였다.

한편 전북도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동시다발 대형산불의 발생 위험의 증가에 대비해, 무인감시카메라(80대) 운영, 산불안전공간 조성, 산불소화시설 확충 등 산불예방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불임차철기(3대), 산불진화대, 감시원(1,418명)을 통한 체계적인 공중·지상 진화체계 구축 계획이다.

유호상 도 환경녹지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과 홍보·예방 활동 강화로 산림 피해 최소화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산불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므로 도민 모두 항상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과 감시 역할을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지방선거 도내 유권자, 153만 2133명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도내 유권자의 수가 총 153만 2133명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152만9,218명, 주민등록 제외국민 1,148명, 외국인 선거권자 1,767명을 합한 것으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보다 4,404명 증가하고, 올해 제20대 대통령선거보다 992명 감소한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75만 7,195명(49.4%), 여성이 77만 4,938명(50.6%)이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31만 1,508명(26.0%)으로 가장 많고, 장수군이 1만 9,380명(0.7%)으로 가장 적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29만 9,899명(19.6%)으로 가장 많고, 18~19세가 3만 5,479명(2.3%)으로 가장 적다. /유호상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청년 주도 성평등 클럽 발대식 개최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지난 20일 청년이 주체가 돼 성평등 인식을

향상시키고, 우리 사회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원하는 2030 청년 성평등 클럽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페미니즘 백래시(반발), 여성혐오 등 젠더갈등이 낱말이 급증함에 따라 성 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미래사회의 주체가 될 청년들의 올바른 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지난 4월 20일부터 10일 간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공개모집을 한 결과, 총 20여 명의 신

청을 받아 각 10명으로 구성된 클럽 활동을 지원한다.

선정된 2개의 팀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전북의 성평등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정책을 발굴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전정희 센터장은 "청년을 관점에서 보는 도내 성평등 정책은 어떠한지, 이에 따라 청년들이 직접 발굴해내는 전라북도 성평등 정책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미래사회의 주체가 될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성별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젠더 감수성을 향상 시켜, 무분별한 성 불평등에 대한 비관적 사고 함양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 인권정책 홍보 포스터 제작

전북도는 도민과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인식 개선·인권감택 구제·선제적 예방 위한 인권정책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제2차 인권기본계획 비전인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을 홍보 포스터 주제로 설정해 다양한 인권주체를 간의 신뢰에 기반한 능동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인권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

용과 통합의 가치로 보호하며 도민 전체의 인권 존중과 배려가 기반이 되는 생활공동체인 인권도시 전북을 지향하겠다는 의지 표현이 담겨있다.

이번 홍보 포스터는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조사대상', 온라인 진정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도는 포스터를 전북도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954곳에 배포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제16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안녕합니다.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제16회 전국 장애인가요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장애인 재능개발로 삶의 의욕을 돋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최하오니 많은 사랑과 홍보를 기원합니다.

대회본부장 김일국

대회홍보위원장 이수정(가수)

대회제진위원장 손명영

- 일시 : 2022년 6월 12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전주 풍남문화광장
- 주최 :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사
- 주관 :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전주시 장애인복지협회
- 후원 : 전라북도, 전주시, 서광수출포장(주), (유)유복이엔지, 삼대농장계성건설(주), 수정과한울타리협의회,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 참가자격 : ① 전국의 16세 이상 등록장애인
② 타 대회 대상, 최우수상 하지 않은 자

전화 : 063-286-6676 · 287-6678, FAX: 287-6676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복임(1933. 5. 27.생 2022. 3. 13.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조제한 사법보좌관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재판 또는 승중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시간번호: 2022-년184 상속한정승인 사법보좌관 조제한
▶피상속인: 망 김복임(1933. 5. 27.생 2022. 3. 13. 사망)
최후주소: 군산시 나운우회로 131-1 (나운동)
▶공고인: 박순
▶상속한정승인유리일: 2022. 5. 13.
▶공고기간: 2022. 5. 23. ~ 2022. 7. 22.
▶주소: 군산시 중앙로 118번지 1층 상가 성산전자냉방

訃告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사 박영근 전무의 모친이신 전효검님께서 소천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소: 대송장례식장 1층 특 1호실(063-274-0761)
-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015(송천동 2가)
- 발인: 5월 25일(수)
- 장지: 임실호국원
- 마음 전하실 곳: 농협은행 302-0214-5727-71(예금주 최수정)